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 Autumn
Vol.62

K-eco(2025)-국민소득PE-6

자연가까이 | 사람가까이

2025 Autumn Vol.62



본 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음성 QR코드를 사용합니다. QR코드를 확인하세요.





우리의
작은 손길이 이어가는
푸름의
가치

우리의 작은 손에서 시작하는
환경을 위한 실천, 자원순환.
숲을 숨 쉬게 하고,
젓빛 하늘을 푸른 하늘로,
우리에게 자연의 온전함을 선사합니다.

자연이 미소 짓고, 사람이 그 미소에 화답하는 세상.
우리의 작은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Contents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2025 Autumn Vol.62

theme

에너지순환의 시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발행인
임상준

발행일
2025년 9월 10일 통권 62호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오류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전화
032-590-3017

제작대행, 인쇄
경성문화사 02-789-2999



K-eco 웹진 바로가기
본 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음성 QR코드를 사용합니다.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인쇄 파트너사에서 FSC® 인증 용지,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I 자연 가까이 테마 이야기

02 지구 생각
우리의 작은 손길이 이어가는 푸름의 가치

06 인터뷰
방송인 김대호



10 인터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원장



14 환경 트렌드 백서
미닝아웃·프리사이클링·RE100·엠제코

16 Column
'기대에 달리다' 현실'에 급제동
폐배터리 재활용업은 지금

18 인포그래픽
자원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요!

20 K-eco 아카이브
환경성보장제(EcoAS)

I 사람 가까이 K-eco 이야기

22 K-eco 포커스 I
2025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26 K-eco 포커스 II
한국환경공단역 역명부기 기념행사

28 K-eco 버킷리스트
민화 그리기



32 친환경 라운지
일상 속 나만의 저탄소 실천법

34 동상동물
축구 동호회 'FC환경공단'

38 기자단이 간다
푸루미 기자단 14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하다

40 K-eco 이슈
우간다 부수쿠마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42 K-eco 메이커스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순환관리부

I 소통 가까이 환경 이야기

46 글로벌 환경 리포트
세계의 재활용·재사용 정책

50 에코 스페이스
방배숲환경도서관



52 에코 로드
완주 만경강길 신천습지길



54 에코톤
지구를 위한 자원순환 실천법

56 건강 라운지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 무릎 관절 주의보!

58 K-eco 이벤트

59 에코 체험
분리배출 네임택

61 나도 K-eco





음성안내 QR코드

도시와 자연. 전 아나운서이자 방송인 김대호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요소를 가장 잘 조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스스로 서울 홍제동 인왕산 자락에 살면서 집안에 자연을 끌어 들여와 살고 있고,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의 예능으로 자연과 함께한다. 그는 프리랜서 선언 이후 유튜브 예능 <흙심인대호>를 통해 농사와 수확의 즐거움 역시 널리 알리고 있다.

글: 하경현 사진: JTBC 디지털스튜디오, 원현드레드레이블

환경보호, 자연의 속도를 느끼는 일에서부터 방송인 김대호

Q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MBC에서 퇴사해 프리랜서를 선언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직장생활을 14년 했는데, 12년 정도는 수동적으로 일하다, 나머지 2년을 정말 12년 일한 것처럼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 소속사를 정해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일의 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로 MBC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고요. 회사 다닐 때는 하지 못했던 유튜브 채널도 출연 중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 경력을 쌓아야 할 것 같아서 개인 MC와 음악 프로그램 등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만 않으셨으면 하네요.(웃음)

Q 프리랜서 선언 후 첫 단독 예능이 <흙심인대호>에서의 농사 도전 '일꾼'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아나운서로 지내면서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을 조금 더 솔직하게 선보일 수 있는 매체도 하고 싶어졌어요. 고민도 나름 있었는데 제안을 해주셨고, 사실 요즘 도파민이 자극되는 예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만큼 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농사도 지어봤고, 자연도 좋아하니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손으로 오롯이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고들 하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같아요.

Q 의외로 농사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으셔서 놀랐습니다.

프로그램 속 농사는 제가 80~90% 주도하는 것 같아요. 작물을 고르고, 기획해오는 건 제작진이지만 어떤 걸 어떻게 심고, 병충해 때 농약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어떤 음식을 해 먹을 것인지는 당일 현장에서 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물론 고수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 어께 너머로 배운 터라, 제작진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니 숙련도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재밌게 봐주시니 좋습니다.

Q 많은 대중이 보는 방송에서 꾸밈없는 모습을 보이는 일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 스스로는 창피한 부분이, 주변 동료나 선배 아나운서들이 제 '아나운서'라는 네 글자를 지켜주고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제가 자신감이 많아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 모습이 부자연스럽지 않았던 것은 많은 분들이 제 모습을 잘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5~6년 정도 전의 환경이라면 불편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오해 없이 봐주시거든요. 저는 원래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12년 동안은 그런 시기를 보낸 거죠.

Q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공존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도시와 자연 중에서 굳이 고르라면, 대자연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인간 세상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는 동네에서 사는 것 같아요. 주택이라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보다는 자연과 친화도가

높으니까요. 제 꿈 중의 하나가 ‘빠른 은퇴’인데, 이것이 일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것을 위해 즉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자연을 선호할 것 같아요. 투자나 노후대비의 개념보다는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우선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Q 농사는 직접적인 환경보호 활동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하나의 실천이기도 한데요. 농사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빠르게 검색하고 AI(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며 많은 부분을 간접 경험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세상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흙심인대호>를 통해 농사를 짓다 보면 진짜 세상의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물이 자라고 토양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느껴져요. 온도만 해도 지난해가 다르고 올해가 다르거든요. 하지만 에어컨 밑에서는 이걸 느낄 수 없죠. 저는 뭐든 직접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딪쳐보거든요. 차가운 토마토만 먹다 익은 토마토의 채즙을 느끼는 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만큼 자연이 다 같은 자연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 자연의 속도에 이상이 있을 때 보전하고자 꾸러는 마음이 더 생겨난다고 봐요.



Q 이상기후로 많은 분들이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농작물도 너무 더워 밭에서 익는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평소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법이 있나요?

저도 1인 가구라 큰 실천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덥고 추운 날씨라고 해도 이를 피해 계시지만 말고, 비록 저의 개인적인 생활이지만 매일 산을 오르면 더운 날씨도 매일이 다르거든요. 어제의 더위와 오늘의 더위 그리고 오늘의 자연과 내일의 자연이 다르죠. 그 과정에서 지구가, 자연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낀다면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행동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보호를 하고 실천을 다들 하라고 하니 따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농사를 짓다 보니 쓸데없는 물보다는 쓸 데 있는 비가 더욱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물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폭우가 오면 필요 없는데 많아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변하는 느낌을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Q 프리랜서로 전향한 이후 스스로 몰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송은 워낙 장르가 다양해졌어요. 많은 장르를 보긴 했지만 진행하는 느낌보다는 출연자로서의 느낌도 가져보고 싶어요.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도 괜찮고요.(웃음) 예전에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생각을 감추고, 드러내는 자체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많이 자연스

러워진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자연가까이 사람이 가까이>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과는 과거 촬영으로 인연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촬영이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건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항상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예민하게 한 번 느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자연도 그렇고 사회도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나 하나의 행동으로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세상 바뀐 것이 바로 자연이예요. 없던 짝이 어느 날 나와 있고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 과정을 섬세하게 바라보는 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음성안내 QR코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윤순진 원장은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연구에서부터 시민 인식 변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걸음은 변화를 만드는 실천에 닿아 있다. 윤순진 원장은 “탄소중립의 가능성을 묻기보다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글. 한울 사진. 오충근



2050 탄소중립,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바꾼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원장

Q 환경대학원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지난 2023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초의 여성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활동으로 시간을 채워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대학원은 1968년 행정대학원 내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과로 출발해 1973년 독립 대학원으로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개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환경대학원 역사상 최초의 여성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원장으로서의 첫해는 개원 50주년과

교육 55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시기였기에, 일주일간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성원들과 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환경대학원이란 명칭에 걸맞은 학문적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환경’이라는 이름을 포함한 학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학내 구성원들과의 논의와 협력을 거쳐 환경관리학 석·박사 학위 과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환경관리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원 운영과 교육·연구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던 시기였습니다.

Q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제가 현재 에너지 전환 포럼 상임공동대표인데요. 포럼 회원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언론인 대상 해외 현장 방문 및 강연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또한 JTBC와 함께 일

본과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현장을 방문하여 <농촌과 태양광, 상생의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청 전후 농민들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Q 최근 집중하고 계신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해양 생태계와 공존하는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에너지연구실,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

연합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3년째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며,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영광군, 여수시, 인천시, 그리고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이 추진 중인 울산시 등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어민·지자체·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양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상풍력 확대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해상풍력 연구 외에도 병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가 어떤가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분석을 통해 기후과학 담론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연구, 북한의 태양광 보급 현황과 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산불 대응 거버넌스 개선 방안, 결혼·임신·육아 등 생애주기별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기후 감성 및 청소년 기후 인식에 관한 정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은 물론, 시민의 인식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고자 합니다.

Q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에너지 전환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일상 속 시민들의 인식과 실천이 함께 변화해야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개개인이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령, 결혼이나 육아처럼 소비가 집중되는 생애주기별 전환점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에너지 효율보다는 브랜드나 디자인이 선택과 소비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에너지 전환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고 어떠한 브랜드를 지지하느냐가 결국 기업의 생산 방식과 정책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소비자가 주권을 행사하면 기업은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으며, 재활용이 잘 되는 소재로 만든 제품과 과대 포장을 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Q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 궁금합니다.

퇴임까지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며,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시각과 지식을 넓혀주는 교육자가 되고자 합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상임공동대표로서 입법 제안, 정책 개선, 시민 인식 제고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으로서 학회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독자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탄소중립이 가능한가?’라고 가능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생존과 산업, 일 자리의 문제이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만들어 갑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지금의 나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의 끝’이 아니라 ‘우리 선택의 끝’이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의 시작은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Q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최하위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발적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시민의 행동 변화를 이끕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가 아닌 산업·경제·에너지 안보의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노력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고, 전 사회가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여야 비로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Q 환경·에너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끊임없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계신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를 움직이는 힘은 ‘정의감’과 ‘연민’입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학문은 단순한 해석을 넘어 부조리를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목해야 할 '환경' 키워드 가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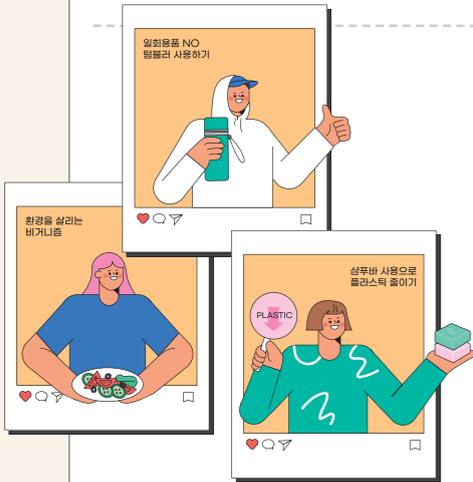
미닝아웃·프리사이클링·RE100·엠제코

기후위기가 점점 삶에 가까워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실천도 다양해지고 있다. 저마다의 방식과 가치를 담은 환경 키워드를 알아두고, 돌아오는 계절에 맞춰 친환경 문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자.

글: 함유진

소비에 가치를 더하다 미닝아웃

일명 '가치소비'라고도 불리는 '미닝아웃(Meaning Out)'은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이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더 비싼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해 SNS에 #친환경'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신념을 널리 표출하거나, 동물권을 지지하는 브랜드의 굿즈를 찾아 구매하는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 사는 것을 넘어 제품이 담고 있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소비하는 방식이다. '미닝아웃'에는 물건을 사는 것뿐 아니라 사지 않는 것, 즉 불매 운동도 포함된다.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 소비를 거부함으로써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치지향적 세대'라고 불리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미닝아웃'은 자신이 가진 생각과 지향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하여 공감과 공유를 통해 하나의 사회참여 문화로 자리 잡았다.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 RE100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의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공동 주도해 시작됐다. 2025년 5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447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했으며 이 중 국내 기업은 36곳에 이른다. 참여 기업들은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거나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실천을 이어간다. 또한 매년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과 계획을 'RE100'에 정기 보고서로 제출해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RE100 실천은 기업의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경영(ESG)을 실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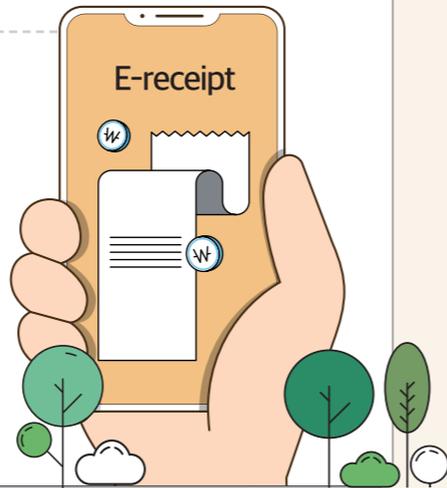
친환경 트렌드 실천 세대 엠제코

'엠제코'는 'MZ세대'와 'Ecology(생태, 환경)'의 결합어로, 환경보호를 주도하는 MZ세대를 뜻한다. 1980~2000년대에 태어난 MZ세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직접 겪으며 환경 문제를 가까이서 체감한 세대다. 환경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며 기후위기가 곧 삶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자각했다. 「딜로이트 글로벌 2025 MZ세대 서베이」에 따르면, MZ세대 10명 중 6명이 지난 한 달간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해 이들이 환경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엠제코'의 핵심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다.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플로깅(Plogging)', 지속가능한 패션을 고려하는 '컨셔스 패션', 소비에 가치를 담은 '미닝아웃' 등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친환경 트렌드다. 기업들 역시 '엠제코'를 의식해 친환경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며 긍정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재활용 이전의 선택 프리사이클링

'프리사이클링(Pre-cycling)'은 '미리(pre)'와 '재활용(cycle)'의 합성어로,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고려하는 소비 방식을 뜻한다. 단순히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물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넘어, 구매 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고 과도한 포장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나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고,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받는 행동 등이 '프리사이클링'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이 '사후 처리'에 가까운 환경 실천이라면, '프리사이클링'은 '사전 예방의 실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 제로(zero)를 목표로 하는 '제로웨이스트'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기대’에 달리다 ‘현실’에 급제동

폐배터리 재활용업은 지금

수요 둔화, 적자 누적, 공장 가동 중단, 인력 감축. 유망산업으로 알려진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가 흑한기를 맞았다. 적어도 3년은 버텨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장밋빛 기대에 몸집부터 부풀린 업계. 정부 지원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글 정호영(이투데이 정치경제부 기자)

*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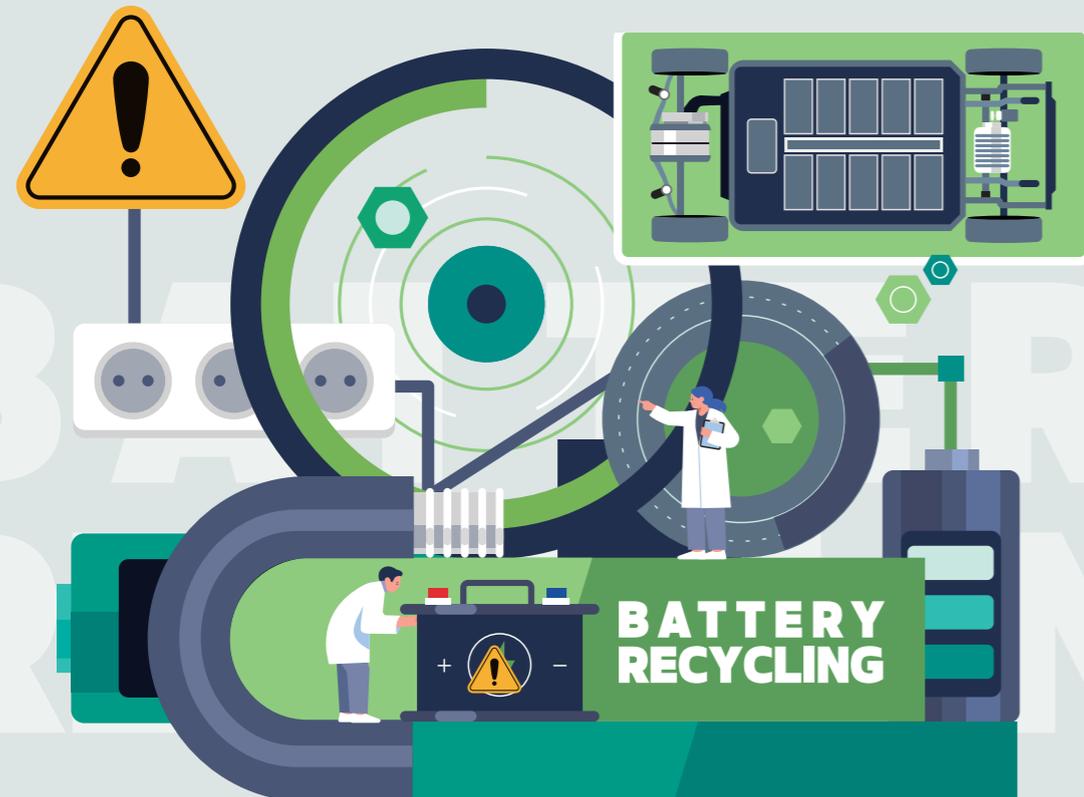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흑한기를 맞다

국내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 A사는 올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창사 첫 희망퇴직을 받았다. 대규모 설비 투자로 커피(생산 능력)를 2배 이상 늘렸지만 2023년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의 폭락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캐즘 전까지는 글로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분위기 속에서 광물 가격 급등,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유망산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리튬 가격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약세로 폭락하며 폐배터리 재생원료 가격보다 광물을 채굴해 쓰는 게 저렴해졌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리튬(탄산리튬) 가격은 정점이었던 2022년 11월 kg당 581위안(현재 환율 기준 약 11만 2,000원)이었는데, 2025년 8월 1일 기준 68위안(약 1만 3,000원)으로 고점 대비 88% 추락했다.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져 공정스크랩(배터리의 원재료나 배터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을 재값보



다 비싸게 확보해야 하는데, 마진이 줄어드니 이종고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 A사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줄었고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비슷한 기간 관련 사업에 뛰어든 기업 중에는 이미 철수했거나 철수를 검토 중인 곳도 있다.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이자 나스닥 상장사였던 ‘라이사이클’은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업계는 2028-2030년 배터리 생산 사이클이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3년은 버텨야 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기간을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부, 폐배터리 재활용업 지원에 나서다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대부분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자원안보 측면에서 적극적인 육성이 불가피한 산업이다. 2031년부터 배터리 생산 시 특정 재생원료 일정 비율 사용을 의무화한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온실가스목표(NDC)와도 직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원료를 재활용할 경우 채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80% 감축할 수 있다.

당장은 어렵지만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2023년 108억 달러(약 15조 원)에서 2040년 2,089억 달러(약 29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봤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이 자국 정부 지원에 힘입어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자원·수출·환경 등 3박자 모두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정부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4대 부문 14개 과제로 구성된 해당 안은 ▲ 재생원료 인증제·사용목표제 도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재활용 의무 부여)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 등 기술혁신 ▲배터리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제 막 첫발을 댄 산업인 만큼 관련 각종 세계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인프라 형성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안에 담긴 다수 지원책이 적어도 2027년은 돼야 본격 시행되는 것, 직접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 등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급한 업계 입장에선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기업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기업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 국익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를 키운 건 기대 과잉,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선불리 시장에 진입하거나 무리하게 몸집을 불린 일부 기업 책임 역시 작지 않다. 특히 전기차 캐즘은 돌발 변수도 아니었다. 보급 초기 고비용과 제한적인 충전인프라, 성능 불안 등 현실적·심리적 장벽에 따른 수요 둔화를 일정 부분 예측 가능했고 관련 개별 기업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 신성장 산업을 둘러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경쟁 이면에는 정부 지원을 일종의 ‘안전판’으로 여긴 배경도 있을 것이다. 정부 보조금 등 산업 특성에 따른 정책적 수혜만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믿고 싶진 않다. 하지만 5월 정부안에 담긴 ‘현장(업계) 목소리’를 보면 재생원료 수요 부족에 대한 경영 애로, 재사용 제품 공공부문 확대 등 수요처 창출,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 요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먼저다.

폐배터리 재활용뿐 아니라 태동하는 어떤 유망산업이라도 정부 또는 기업 어느 한 축의 노력만으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업이 경쟁국에 밀리지 않도록 업계의 도움단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보조는 결코 메인이 될 수 없고, 무한하지도 않다. 업계가 정부 지원으로 세계와 눈높이를 맞춰 점프할 수만 있다면, 각자 권 공으로 목표점에 스파이크를 꽂아넣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특점은 기업에 밸류 업, 정부에 성장률이라는 과실로 돌아올 것이다.

자원순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환경보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자원순환을 위한 노력을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 자료 출처: 국가환경교육센터,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과 관련된 기념일

-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1972년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공해, 오염 등의 문제를 범지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UN에서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7월 3일)**
 2008년 스페인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이다. 매년 40여 개국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 자원순환의 날(9월 6일)**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제정한 날이다.
-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현대의 소비주의에 저항하여 만들어진 날로, 1992년 캐나다인 테드 데이브가 자신이 만든 광고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 없이 무언가를 소비하게 만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캠페인이다.

자원순환을 위한 4가지 실천 ACT 4R

- REduce**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 REuse**
 재사용하고
- REcycle**
 올바르게 재활용하고
- REcovery**
 에너지로 다시 만들고

자원순환 관련 인증제도

순환자원사용제품 인증제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페지류나 고철, 폐금속캔류, 알루미늄, 폐유리 등 순환자원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재활용품(GR) 인증제도
 우수재활용품(GR)인증은 재활용제품의 품질,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인증제도이다.



생활계폐기물 현황(2023년 기준)



폐기물 재활용 현황



2025년 분리배출 이렇게 달라졌어요

품목	바르게 버리는 법	주의사항
투명 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뚜껑 제거	혼합 배출 금지
플라스틱 용기	깨끗이 세척 후 배출	유색 플라스틱은 제외 가능성
비닐류	깨끗한 비닐만 따로	음식물 오염 시 일반쓰레기
종이류	스티커·테이프 제거 후 묶기	코팅지 제외
캔/병	내용물 비우고 뚜껑 분리	깨진 병은 위험폐기물
스티로폼	테이프 제거 후 배출	오염 시 재활용 불가

※ 특히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은 오염 여부 따라 일반쓰레기로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한다.
 ※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환경 영향 최소화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다 환경성보장제(EcoAS)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제품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성보장제(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보장제를 통해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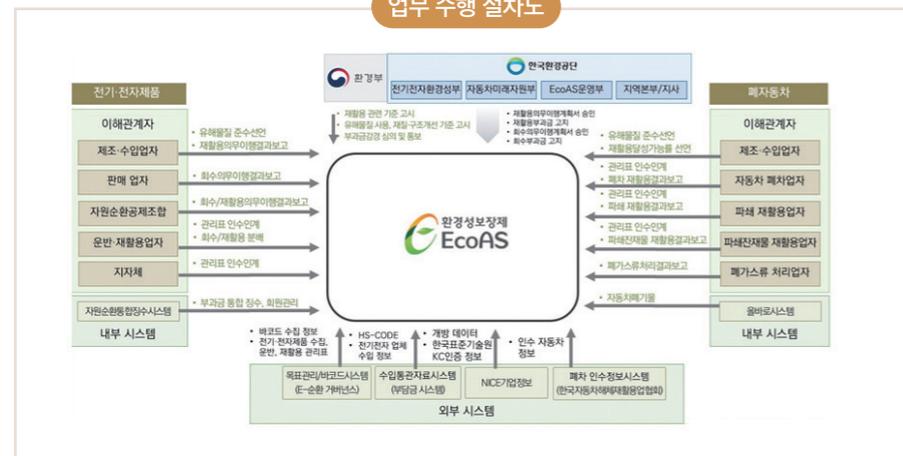
정리. 편집실

환경성보장제(EcoAS)란?

환경성보장제(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환경성)을 높이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기반으로 발전한 이 제도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환경적 책임을 지도록 개선한 제도이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를 대행하여 환경성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coAS’는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 규제인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제품 지침(WEEE), 폐차지침(ELV)을 준용하되, 한국의 재활용 여건에 맞게 적용했다.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등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며,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폐기 시 효율적으로 자원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수행 절차도



EcoAS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주요 기능

유해물질 관리 및 재활용 실적 보고

생산자는 EcoAS시스템을 통해 10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 사용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신고하고,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정보를 등록한다. 또한, 연간 재활용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하며, 이를 통해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폐기물 처리 과정 추적

수거·운반자와 재활용 처리자는 폐제품의 인수·인계 기록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재활용 관리표를 작성한다. 폐전자제품이 수거된 후 재활용 시설로 운반되고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이는 불법 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희소금속 등 '도시광산'자원 회수 체계 구축의 기반되고 있다.



데이터 통합 및 정책 지원

EcoAS시스템은 재활용 실적, 폐기물 처리 현황, 유해물질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책 수립 지원과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대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참여 기업의 법적 준수를 지원한다. EcoAS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설계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생산자는 법적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처리하고 진행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적·경제적 효과와 전망

EcoAS시스템은 환경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환경적으로는 유해물질 사용 억제와 폐기물 감소를 통해 환경부담을 줄인다. 예를 들어, 폐전자제품의 재활용률 증가로 금, 은, 구리, 플라스틱 등 유가금속의 회수율이 높아지고, 매립 폐기물은 감소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자원순환을 통해 원자재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은 자동차 산업의 비용 절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 설계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자원순환 경제를 활성화한다.

환경성보장제(EcoAS)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제도이다. 한국환경공단은 EcoAS시스템을 통해 생산자, 재활용업체, 정부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향후 대상 제품 확대에 맞춘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로 환경보호와 경제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모두 '플라스틱 제로'를 만들어갈 때

2025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2025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에서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 모두의 행동'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국내외 전문가와 미래세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탈플라스틱 실천 방안과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모색한 현장을 찾았다.

글. 한울 사진. 김성진



플라스틱 위기 속 지속가능한 길을 찾다!

가볍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 삶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플라스틱은 현재 무분별한 사용과 폐기로 인해 지구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매년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수백만 톤에 달하며, 이는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또한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은 땅속에 묻혀 토양을 오염시키고,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우리의 식탁 위까지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21년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 온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은 플라스틱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탄소중립, 순환경제, SDGs, ESG경영 등 다양한 환경 의제를 폭넓게 다루며, 국제적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포럼에서는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우리 모두의 행동'을 주제로,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개회식 시작 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 입구 앞 체험 및 홍보 부스가 관람객들로 붐볐다.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 선보인 혁신적인 탈플라스틱 기술 전시와 서귀포시 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창의적인 플라스틱 재활용 작품, 지구촌 곳곳의 아름다움을 담은 국제보호지역 사진전 등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했다. 또한 페플라스틱을 이용한 키링 만들기 및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친환경 비누를 만드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참가자들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우리 모두의 행동'으로

오후 1시, 개회식의 막이 올랐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데레에 아젠틀라우 센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국장,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 심민철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배우 김석훈 씨 등 주요 관계자와 제주도민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제주 다온무용단이 지구와 환경을 지켜나가는 미래 세대의 희망을 몸짓으로 담아낸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영상과 해너복장을 한 어린이들의 퍼포먼스는 포럼의 의미와 메시지를 더욱 감동적으로 전했다.



임상훈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서는 50℃가 넘는 폭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시대에 플라스틱은 치명적인 재앙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 또한 이를 지구의 3대 위기 중 하나로 선언했다. 그만큼 플라스틱 문제는 인류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의 주제에는 ‘우리 모두의 행동’이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앞으로 포럼은 단순한 학술 논의를 넘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포럼이 공유의 장을 넘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행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로 ‘플라스틱을 위한 우리의 행동 약속’ 도장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 퍼포먼스에는 3주간 장바구니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등 ‘그린 액션 체인지’를 실천한 어린이가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임상준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무대 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전략 중 환경 분야의 5개 핵심 키워드와 ‘2030 플라스틱 제로’ 슬로건이 새겨진 대형 도장이 준비되었다. 참석자들은 도장을 힘차게 찍으며 ‘플라스틱 제로 실현과 미래세대를 위한 다짐’을 깊이 새겼다. 이어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라는 선창에 “우리 모두의 행동”이라는 화답이 울려 퍼지며, 퍼포먼스는 뜨거운 박수 속에 마무리되었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연대와 도전을 위하여!

메인 세션에서는 ‘제주의 탈플라스틱 약속과 실천의 여정’을 주제로 강애숙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과 김효은 글로벌인더스트리허브 대표,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의 주인공인 배우 김석훈 씨의 기조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제주의 탈플라스틱 약속과 실천의 여정’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한 강애숙 국장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는 전 세계 기후변화 요인의 최소 10%를 차지하며, 지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라는 목표를 세우고, 플라스틱 배출 원천 저감과 재활용 확대를 통해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제주의 가장 큰 경쟁력인 청정 자연을 지키기 위해 도민과 기업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효은 글로벌인더스트리허브 대표는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인류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와 화학산업의

대전환, 청정에너지 보급과 신기술 개발 등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배우 김석훈 씨는 “덜 사고, 덜 먹고, 덜 입는 것에서 환경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 편리함을 좇는 욕심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중에게 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담에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 데레제 센쇼우(Dereje Senshaw)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기후행동 및 포용적 개발 부문 부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오염 저감과 국제 협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포럼의 깊이를 더했다.

이어서 열린 한국환경공단 세션에서는 재생원료관리센터 조영진 과장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단의 주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 재생원료 품질기준 마련,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사용비율 표시제 도입,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품질 모니터링 등 그간의 성과를 짚고, 시장 생태계 조성 방향과 입법 추진 계획,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이밖에도 부대행사로 제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미래세대 청년세션이 열려, ‘청년 행동이 바꾸는 플라스틱 없는 내일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기술을 다룬 학계 세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 세션,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사례 공유 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포럼의 의미와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플라스틱 오염은 바다와 육지, 생물과 인간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실천과 연대를 이어가며,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 대표 기관으로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역 역명부기 기념행사

공 검암
(한국환경공단)

지난 7월 24일 한국환경공단은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역명부기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일상생활 속 국민에게 더욱 친근한 공단이 되기 위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 현장을 찾았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환경공단

검암역에서 검암·한국환경공단역으로 역명 변경

한국환경공단이 일상 속 국민의 기업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지난 7월 21일부터 공항철도 검암역에 한국환경공단의 이름이 덧붙여졌다. 이를 기념해 한국환경공단은 공항철도 검암·한국환경공단역 역명부기 기념행사를 열었다. 역명부기는 종전 역명 뒤에 괄호형식으로 기관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관의 인지도 향상과 역을 사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 공항철도의 역명부기 입찰에 참여했다. 인천 서구청의 역명부기 선호도 조사 실시, 역명부기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최종 확정되어 '한국환경공단역' 명칭도 함께 쓰이게 됐다.



지역과의 상생 가치를 상징

이번 '한국환경공단역' 역명부기는 공단의 이미지 홍보를 넘어,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와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환경공단은 인천 서구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 서부권을 아우르는 환경정책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역명부기를 통해 지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상징성과 지역과의 상생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 차광명 경영기획이사는 "이번 한국환경공단역 사용개시와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단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지역 환경정화활동, 교육 프로그램, 역이나 광장을 활용한 활발한 환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이 매일 일상적으로 오가는 공간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음성안내 QR코드

한 붓 한 붓 마음을 그리다 민화 그리기

민화는 우리 민족의 생활을 반영한 고유한 예술이다. 솔직하고 소박한 표현이 매력적이다.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민화 그리기에 도전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오롯이 자신의 세상에 집중할 특별한 경험을 소개한다.

글 임성은 사진 오충근



민화의 분위기에 빠져들다

정감이 묻어나는 민화가 가득 채워진 화실 풍경에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미소 짓는다. 민화 고유의 따뜻한 분위기에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다. “색이 너무 예뻐요” “집에 걸어 놓고 싶네요”라며 공간을 둘러본다.

오늘 민화 그리기에는 박광찬 차장, 장경미 과장, 김윤영 대리, 이재원 주임이 함께했다. 부서는 달랐지만 공단직원이라는 소속감은 낮은 공간에서 서로를 편안하게 했다. 강원환경본부에서 올라온 박광찬 차장은 “미적 감각이 없어서 걱정이라 선생님만 믿겠습니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민화 그리기는 처음이라는 네 명. 하지만 평소에 한번은 꼭 해보고 싶었다며 의지를 전한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민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고운 이름을 가진 물감과 붓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복을 담고 있는 민화의 정서

민화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이자 고유한 그림이다. 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고 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상징들이 담겨있다. 강사는 민화에 대해 설명했다.

“민화의 주제는 주로 호랑이, 연꽃, 복숭아, 학, 용, 거북이, 향아리 등 자연과 동물을 주제로 일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장수, 행운, 부귀, 평안 등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오늘은 ‘연화도’와 ‘난을 품은 달향아리’를 채색해 보려고 합니다.”

‘연화도’는 ‘청렴’, ‘고귀함’, ‘복덕’을 상징한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에 순결함과 고귀함을 상징하고 연꽃의 씨앗(연밥)이 많을수록 다산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달향아리’는 보름달을 닮은 둥근 형태가 ‘온전함’과 ‘균형’, ‘풍요’를 의미하여 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풍수 소품으로 여겨졌다.





박광찬 차장과 김윤영 대리는 '난을 품은 달항아리'를, 장경미 과장과 이채원 주임은 '연화도'를 그리기로 했다. 김윤영 대리는 "달항아리의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고 싶어요"라고 선택한 이유를 전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색을 채우다

먼저 먹지를 대고 따라 그리는 스케치 작업을 시작했다. 박광찬 차장과 김윤영 대리는 '달항아리'의 곡선에 집중했고, '연화도'를 선택한 장경미 과장과 이채원 주임은 연잎, 연꽃, 연밥을 차례차례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각자의 손힘에 따라 때로는 진하게, 때로는 연하게 그려지는 스케치선에서 섬세함이 엿보였다. 다음은 바탕색 칠하기. 각 요소별로 한 가지 색상으로 바탕색을 칠하는 작업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강사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빠른 손놀림에 모두 '와~'하고 탄성을 질렀다.

장경미 과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마음이 급해지네요"라고 하자, 강사는 "잘하고 계신데요. 물조절 하면서 한 번씩 덧칠하면 깔끔해져요"라며 격려했다. 이채원 주임은 채색 작업에 흥뻑 빠진 듯 조용히 자신만의 작업을 이어갔다.

달항아리를 채색하던 김윤영 대리는 물조절이며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강사 역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칭찬한다.

"제가 취미부자예요. 원데이 클래스를 찾아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라탄공예, 스테인글라스 등 많이 해본 거 같아요. 민화도 해보고 싶었는데, 공방을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하게 되어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제 민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림을 배울 차례다. 바림은 색을 쌓아올리는 작업으로, 붓칠을 여러 번 반복해 색을 짙게 하고 음영과 입체감을 줄 수 있다.

강사가 연꽃잎 끝부분에 붉은색으로 덧칠하고 바림 붓으로 살살 펴 바르니 그림에 생기가 돈다. 장경미 과장과 이채원 주임은 호흡을 가다듬고 나머지 꽃잎들의 바림 작업에 집중했다.

박광찬 차장과 김윤영 대리의 달항아리 그림도 바림 작업을 거치자, 입체감이 넘치고 복을 가득 담은 항아리의 모습을 갖추었다.

일상 속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되다

마지막으로 채색한 민화 위에 먹선을 그려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진행됐다. 최대한 얇게 그리는 것이 포인트. 바림 작업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꼈던 네 명의 직원들은 순간 긴장했다. 붓으로 얇게 테두리를 그려나가야 하는데, 호흡만 잘못해도 붓이 선을 뫼나가자, 숨도 아끼며 작업을 이어나갔다.

김윤영 대리는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는데, 용두사미가 될까봐 걱정이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집에 자랑스럽게 걸어두고 싶어요"라며 붓을 섬세하게 움직였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다.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는 네 사람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다. 장경미 과장은 "바림만으로도 너무 예쁜 그림이었는데, 테두리를 하니 그림이 더욱 선명해지네요"라며 뿌듯함을 전했다. 이채원 주임은 "오롯이 정성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힐링이 됐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강사는 "오늘 순위를 따질 수 없을만큼 모두 잘하셨습니다. 처음 작업하시는데도 집중하면서 각자의 작품을 완성하신 것 같아요"라며 엄지를 세웠다. 장경미 과장은 박광찬 차장과 김윤영 대리의 '달항아리' 민화를 보고 "보름달처럼 매끈하고, 복이 많이 들어올 거 같다"라며 칭찬했다. 네 사람 모두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서로 기쁨을 나눴다. 복이 가득 담긴 각자의 작품과 함께 오늘의 특별한 경험이 오래도록 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길 바란다.

민화 그리기 체험 후기



박광찬 차장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환경서비스지원부

그림에는 재능이 없지만 강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집에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은 완성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추억으로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장경미 과장
본사 환경시설본부
환경에너지시설처
폐기물시설진단부

민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기회로 열심히 했습니다. 두 딸이 미술을 전공했는데, 엄마가 그린 그림은 처음 보겠네요. 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김윤영 대리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이번 체험을 통해서 민화의 매력에 흥뻑 빠져서요. 자연스러운 그림과 공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오늘 해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채원 주임
본사 국민소통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민화에 집중해서 즐겁게 그린 거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더 잘 그렸을 텐데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연꽃을 예쁘게 완성해서 뿌듯합니다.

일상 속 나만의 저탄소 실천법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각종 자원과 폐기물들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환경보호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는 지금, 일상 생활 속 저탄소 실천법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김민지 주임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부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비닐 트레이 대신 드링크 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짐이 많아 손이 모자라거나 자전거 탈 때 등의 상황에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바로 마시기도 좋은데 환경까지 지켜줘서 여러모로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정유석 대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화처 재료시험부

더운 여름,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보내기보다 책 한 권과 텀블러를 챙겨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에너지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소소한 친환경 챌린지였습니다.



김윤영 대리

충청권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저의 소소한 친환경 습관은 '장바구니 챙겨 다니기'입니다! 저는 왜인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장바구니를 챙기지 못해 구매하게 되는 종량제 봉투가 정말 아깝더라고요. 여러 차례 사용가능한 장바구니에 장을 보면, 돈도 아끼고 지구도 지키는 좋은 습관 같아서 항상 가방에 소옥 넣어다니답니다. 요즘은 이곳 저곳 행사때마다 접이식 장바구니를 주는 곳이 많아서 출퇴근용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에 하나씩 넣어두니 갑작스럽게 장을 보게 될 때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남규 과장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아직도 페트병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페트병을 재활용수거함에 넣으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으로 제거하지 않은 라벨은 발견 시 꼭 제거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문선록 과장

본사 K-eco연구원 측정기검사부

우리 가족은 달력을 이용하여 이면지로 활용합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쓰면 간편하고 재질도 좋아서 글씨도 훨씬 잘 써진답니다. 아이들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에게 전파한다고 합니다. 재활용 습관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아요!





등근 공으로 하나되는 즐거움 오늘도 행복 풋



축구 동호회 'FC 환경공단'

작은 공 하나로 유대감을 쌓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 등근 공을 매개로 하나가 되는 값진 경험은 축구만이 선사하는 특별한 매력이다. 'FC환경공단'은 축구를 통해 즐거움과 화합, 그리고 건강까지 챙기며 회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을 쫓는 순간만큼은 나이와 직급, 성별을 넘어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다. 무더위 속에서도 그라운드를 누비는 이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빛난다.

글 한울 사진 오충근

누구나 함께 즐기는 '행복 축구'

무더위가 남아 있던 8월 말 저녁, 'FC환경공단' 회원들이 퇴근 후 축구장으로 모였다. 비 예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을 택한 이들의 표정에는 즐거움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가볍하게 준비운동을 마친 후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는 회원들의 눈빛에는 승부욕과 팀워크의 열기가 함께 빛났다. 초록 잔디 위를 가르는 이들의 발걸음에는 활력이 담겨 있었다. 'FC환경공단'은 지난해 4월 창단했다. 신생 동호회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회원 수가 8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축구 동호회에 가보니 재미있더라"라는 입소문 덕분이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몇몇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 공단을 대표하는 스포츠 동호회로 자리 잡은 비결은 무엇일까?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의 김보경 대리는 '행복 축구'에 그 답이 있다고 말했다.

"저희 동호회는 '행복 축구'를 지향합니다. 우선 실력·성별·나이·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동호회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축구는 포지션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회원이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보자 와 경기 중 실수를 하는 회원들이 있어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도 경쟁보다는 화합과 친목 도모가 창단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 힘쓰기 보다는 함께 호흡 맞추고 팀워크를 이루는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사이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될 수 있

어 좋더라'는 반응이 많고, 한 번 참여한 분들이 꾸준히 계속 나와 주시면서 회원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축구 특성상 활동량이 많고 몸싸움이 잦아 부상 위험이 높은 만큼, 'FC환경공단'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경기 전에는 철저히 준비운동을 함께 진행하며, 경기 중에는 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당부한다. 회원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FC환경공단'의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이다.



축구가 전하는 짜릿한 희열

'FC환경공단'은 매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고, 투표를 거쳐 가장 참여율이 높은 날짜에 맞춰 경기를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경기를 치르며, 축구와 풋살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여성 회원들도 합류해 별도의 팀을 꾸렸다. 초기에는 10명 내외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4명가량으로 늘어났다. 여성 회원들은 2주에 한 번 정도 미니 게임이나 패스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호회에서 총무직을 맡고 있는 물환경본부 토양지하수처 토양정화부 소호섭 대리가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 말쯤 여성 직원들이 '우리도 축구를 하고 싶다'라며 연락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별도 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어요. 지난 5월에는 여성 회원들이 다른 팀과 경기를 치렀는데, 열정과 승부욕이 남자 회원들 못지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하더라고요(웃음). 'FC환경공단'은 여성 회원들도 축구를 맘껏 즐길 수 있는 동호회로, 더 많은 여성분들이 축구를 통해 회사 생활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회원들에게는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일지도 모른다. 사실 처음에는 공을 밟고 넘어지는 일도 다반사였는데,

이제는 경기에서 제법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후대기본부 사업대기처 사업장대기기술부의 천주영 대리의 이야기다.

"해외축구를 좋아하는 여자 동기들과 저녁을 먹다가 풋살에 다들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 '그루유나이티드(G.R. Utd)'라는 팀을 결성하자는 도원결의를 맺었습니다. 풋살공과 풋살화를 준비하고 단체복까지 맞춰 연습을 시작했지만, 비용 문제로 매주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FC환경공단' 동호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받아주셔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외부 팀과 매치를 치르면서 한 팀이라는 소속감과 전우애를 느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골을 넣을 때의 짜릿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활력·즐거움·건강, 세 마리 토끼를 잡다

'FC환경공단'은 지난해 인천시 공공기관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아쉽게도 예선에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회원들에게는 값진 경험이자 또 다른 도전의 발판이 되었고 동료애와 팀워크를 한층 더 끈끈하게 다져주었다. 김보경 대리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회에 꾸준히 도전해, 더 큰 성취와 팀워크를 쌓아 가겠다"라고 전했다.



Mini Interview



김보경 대리(회장)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여성 회원들의 실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기회가 되면 남성 회원들과 함께하는 혼성 이벤트 경기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또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는 인센티브 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의 가장 큰 가치는 화합과 안전, 그리고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이를 지켜가며 모두가 행복하게 뛰는 동호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소호섭 대리(총무)
물환경본부
토양지하수처 토양정화부

축구의 가장 큰 매력은 목표를 두고 끝까지 뛰는 다이내믹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후 땀을 흘린 뒤에 느끼는 시원함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죠! 앞으로도 회원들이 더 즐겁게 뛸 수 있도록, 더욱 재미있는 축구 동호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축구 동호회를 통해 일상에 활력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에게 축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함께 뛰며 추억을 쌓는 특별한 경험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 공을 차며 웃고 달리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듯, 축구는 그 시절의 순수한 즐거움과 팀워크의 가치를 다시 불러내는 운동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면서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물환경본부 물환경관리처 수질오염방제부 조세형 대리가 축구의 매력을 전했다.

"어린 시절에는 골을 넣을 때 느껴지는 짜릿한 희열이 축구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은 골의 기쁨도 여전히 있지만,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경기를 풀어나갈 때 느끼는 소속감과 협력의 즐거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형성되는 유대감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 중에는 모두가 열정적으로 임하지만, 끝난 뒤에는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문화 역시 축구의 큰 매력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회원들은 기념촬영을 하며 하루를 추억으로 남겼다. 서로의 실력을 칭찬하며 성취감을 나누는 모습은 더없이 보기 좋았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 나가는 'FC환경공단'. 회사 생활의 활력, 취미의 즐거움, 건강한 에너지로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가고 있는 이들의 행보를 힘껏 응원한다.

푸루美 기자단 14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하다



지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의 푸루美 기자단 14기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KWC: Korea Water Cluster)를 방문했다. 1박 2일간의 여정 속에서 환경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푸루美 14기. 국내 물산업의 중심지에서 펼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아본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환경공단

물산업의 미래를 만나다

8월 11일, 푸루美 14기 기자단은 동대구역에 모였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견학을 위해 설렘과 호기심을 안고 출발한 그들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단체사진으로 첫 순간을 기념했다. 첫 번째 일정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였다. 홍보 영상을 시청하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역할과 주요 사업을 배웠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물기술 개발, 성능 검증, 사업화, 해외 진출까

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내 물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이다. 이곳에는 실증플랜트, 수요자설계구역, 종합관망시험시설, 물융합연구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워터캠퍼스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푸루美들은 물기술 디지털화 지원, 탄소 중립 실증, 성능 확인 사업 등 클러스터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들으며 메모를 하고 질문도 쏟아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위상을 실감

푸루美들은 브리핑존, 클러스터 홍보존, 입주기업 홍보존, 디스커버리존으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물산업의 역사와 현황,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을 살펴봤다.

이어진 일정은 재료시험실, 실험분석실, 실증플랜트 시설, 입주기업 방문이었다. 재료시험실에서는 수질 분석과 기자재 기준 확인 과정을 꼼꼼히 관찰하며 궁금증을 해소했다. 실험분석실에서는 입주 기업의 시료 측정을 위한 첨단 장비들을 보며 그 규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증플랜트 시설에서는 맞춤형 연구개발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직접 둘러보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위상을 실감했다. 또한, 입주기업 중 제이텍 워터와 블루센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물산업 관련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콘텐츠로 담아낸 푸루美의 열정

견학을 마친 푸루美들은 콘텐츠 제작에 돌입했다. 일일리포터가 되어 조별 릴레이식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곳곳에서 홍보 콘텐츠를 촬영했다. 조별로 나뉘어 팀 미션을 수행하며 진흥시설, 실증플랜트, 입주기업들을 배경으로 개성 넘치는 솜씨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 콘텐츠들은 한국환경공단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둘째 날, 푸루美 기자단 14기는 대구시 관광지인 간송미술관을 둘러보며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동대구역으로 돌아와 1박 2일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견학은 국민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홍보 콘텐츠를 통해 환경정책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푸루美 14기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
우간다 초등학생·지역주민과 희망을 나누다



우간다 부수쿠마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지난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우간다 부수쿠마에서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간다가 직면한 환경문제 해결과 보전을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현장을 담았다.

글: 편집실 사진: 한국환경공단

부수쿠마 지역사회와 함께한
희망 나눔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지난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우간다 부수쿠마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환경문제 해결을 넘

어, 지속가능한 환경 정비를 위한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의 상호이해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부수쿠마 지역은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는 곳이다. 분뇨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해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악취와 토양·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이는 곧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주민들의 삶과 보건 및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개발도상국이 가진 사회적 취약성과 시설 부족이 환경문제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총 81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분뇨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물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지 주민들에게 시설 운영 노하우를 꾸준히 전수해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 인식 개선과 문화 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조성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사회공헌단은 부수쿠마 지역의 나물롱게 초등학교(Namulonge Primary School) 학생 약 600명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위생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단 단원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양국 간의 문화 교류도 활발히 진행했다.

한식 조리 특기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학생, 교사, 지역 주민들과 나누었으며 태권도, 춤, 노래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초등학교 내 노후화된 시설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화장실, 세면대, 주방 등 열악한 시설을 정비하고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을 지원해 디지털 교실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다. 이번 활동에는 배우 남보라와 가수 EB도



함께했다. 이들과 함께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은 환경보전과 개발도상국 지원의 필요성을 담은 SBS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일반의약품 600인분을 지원해 지역 보건소에 전달했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회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기술로 설치되고 있는 부수쿠마 분뇨처리시설과 이번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은 한국과 우간다의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환경공단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희망나눔을 실천한 소중한 발걸음이었다.



음성안내 QR코드

자원순환 최전선에서 묵묵히 나아가는 발걸음

폐자원사업처 폐자원순환관리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과 안전을 지켜온 폐자원순환관리부는 전국 각지에서 자원순환의 최일선을 맡아왔다.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기민한 현장 조치로 국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현장형 부서'로서의 사명을 이어가며, 국민과 환경을 위해 책임 있게 나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글. 한울 사진. 박충렬

자원순환 현장의 허브 역할을 하다

폐자원순환관리부는 자원순환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며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부서다. 조병근 부장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분야 경험이 풍부한 차장 1명, 다양한 실무 역량을 갖춘 과장 3명, 열정과 추진력을 지닌 대리 2명, 환경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턴 1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유기적인 협업과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 압수폐기물 자원화 사업, 재활용품 비축 사업 등의 핵심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다. 조병근 부장이 부서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저희 부서는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민간 위탁 수거업체와 농민, 자원순환 관련 업계가 함께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 폐자원을 수거 및 재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수거사업은 공단 설립과 함께 시작된 모태 사업으로, 197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된 영농폐기물의 적정 수거·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폐자원순환관리부는 전국 36개 수거사업소와 1만여 개의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통해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모인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촌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은 2006년에 불거진 사행성 게임장 문제를 계기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폐자원순환관리부는 전국 13개 거점 36개소의 보관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해 압수된 사행성 게임기 등 전기·전자제품을 보관·폐기·자원화해 왔다. 현재까지 약 242만 대를 인수해 236만 대를 처리했으며, 현재는 사업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재활용품비축사업은 2018년 중국의 폐자원 수입 중단으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품 수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활용품 단가 폭락 등 시장 불안정 시, 공공부문이 개입해 재활용품을 비축·방출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 6개 거점 비축시설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수거 거부 사태 방지와 재활용 산업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축적된 경험과 인프라, 재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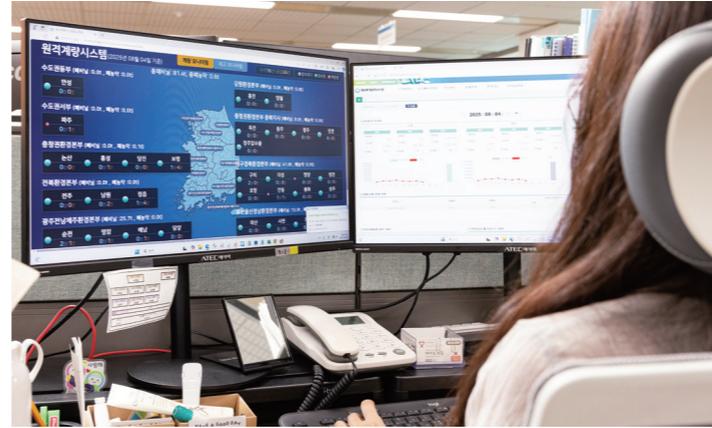
폐자원순환관리부에게 올봄은 숨 가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 사업장 지원을 위한 재난폐기물 처리에 긴급 투입된 것이다. 산불은 경북 안동의 농공단지를 비롯해 각지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특히 안동 농공단지 내 50여 개 사업장이 전소되면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일반 가정의 피해 폐기물은 '자연재난법'에 따라 국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사업장폐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현장 실태 확인 후 예외적으로 사업장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결정했다. 폐자원순환관리부는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조사단에 신속히 투입됐다. 약 6일간 65개 피해 업체를 직접 방문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방법을 조사했으며, 참혹한 현장에서 피해 사업장들을 마주했다. 공존영 과장이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들을 위해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피해를 입고도 애써 웃으며 맞아 주신 사업장분들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

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약 33억 원 규모의 처리비용이 산출돼 예산 확보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폐자원순환관리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피해 복구 속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과 산업 현장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임을 입증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서도 마찬가지다. 폐자원순환관리부는 피해 조사 지원을 위해 대응 인력을 구성하고 장비를 투입해 현재까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통과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밝은 내일

폐자원순환관리부의 업무는 전국 단위에서 펼쳐지는 만큼, 현장에서는 늘 새로운 과제가 이어진다. 부서원들은 각자의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난관에 부딪히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간다. 폐자원순환관리부는 활발한 소통과 효율적인 회의를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조직 문화가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다. 그리고 업무 외 시간에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기며 친밀감을 쌓는다. 이러한 유대감과 팀워크는 현장에서의 민첩한 대응력과 부서 전체의 시너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부서는 맡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일에 힘을 분산하기보다 꼭 필요한 업무에 역량을 모아야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시간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에 몰입하는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순환관리부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고객 만족'이다. 이들이 말하는 고객은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재활용사업자, 압수폐기물 자원화사업의 검찰·경찰,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의 농민 등 사업별로 성격과 요구가 각기 다른 다양한 파트너를 의미한다. 폐자원순환관리부는 이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요구 사항을 정책과 현장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폐농약용기의 소각방식 개선이다. 폐자원순환관리부는 고객의 제안에 따라 법률 검토와 시범사업을 거쳐, 기존의 고온소각 방식을 일반소각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폐자원순환관리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현장의 요구에 발맞춰, 한층 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폐자원순환관리부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폐자원순환관리부의 책임감과 팀워크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자원순환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이들의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



Mini Interview



조병근 부장

자원순환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의 모든 노력이 농촌과 산업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과 환경을 위해 책임감 있게 임하겠습니다.



공준영 과장

업무를 하다 보면 걱정거리도 많고,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서원들과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다 함께 웃으며 하나 된 분위기 속에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음성안내 QR코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만의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바이오플라스틱 등 곳곳에서 자원순환과 관련해 친환경 챌린지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더불어 세계 각국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기업과 민간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독일·네덜란드, 순환경제를 위해 재사용에 집중하다

재활용 선진국 독일은 2022년 기준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이 69%로 EU(유럽연합)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회수된 폐기물의 품질 문제로 인해,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국 재활용 공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는 분리배출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독일은 분리배출을 뒤로 하고, '재사용'에 집중하고 있다. 2002년에 도입된 '공병보증금제(Pfand)'는 이미 음료용기 회수율 98%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2026년부터 국가 플라스틱세를 시행해 일회용 식품 포장용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연간 부과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거리에 있는 지하 쓰레기통.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 및 친환경 접근

네덜란드는 '2050년 완전 순환경제' 달성을 목표로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이미 2023년부터 일회용 컵과 포장재에 플라스틱세를 부과했고,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 결과, 포장재 재활용률은 75%,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45.7%에 달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각종 폐기물에 우선 순위를 매겨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연간 200만 톤의 종이 및 유리의 90%가 재활용돼 제품 생산에 재사용 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 연구기관 RIVM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재활용 품질은 여전히 낮고, 다회용 시스템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사용 중심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반환-재사용' 행동을 유도하는 유통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라이프치히, 독일: 역 자판기에서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는 사람들



EU, 탈 플라스틱 정책을 채택하다

EU의 경우 탈 플라스틱 정책을 우선으로 플라스틱 감축 규제와 신순환경제 등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EU에서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라벨링 및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식기류, 음료용 컵, 접시, 빨대, 산화분해성 제품 등의 역내 유통 및 판매 금지와 음료수 컵과 물티슈, 위생용품 등의 경우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 정보가 담긴 라



세계의 재활용·재사용 정책
잘 버리는 것을 넘어 다시 쓰는 것에 집중하다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약 3억 5,000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문제는 이미 전 지구적인 과제다. 최근 세계는 재사용을 비롯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화학적 재활용'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폐기물 감소, 자원 보존, 경제 성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폐기물 재활용·재사용에 관한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참고 자료. 한국미디어뉴스, 농식품수출정보, KOTRA, 환경일보

벨링을 부착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페트병의 경우, 2025년부터 생산과정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된다. 또한 EU는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 50%, 2030년 55% 등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신순환경제 전략인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 경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 외 재활용 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1kg당 0.8유로의 플라스틱 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호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규제 가속화

중국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4대 직할시, 27개 성·자치구의 성도 등 우선 시행 도시에서는 백화점, 쇼핑몰, 슈퍼, 마트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금지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각종 전



시 행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플라스틱 제한령을 시행하는 도시의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제로 웨이스트 아이템들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인기를 끌며 환경을 위해 쓰레기 생산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캠페인이 진행됐다.

2021년 호주 정부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100%를 재활용 하거나 재사용 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순환경제를 추구하며 환경친화 규제 도입도 가속화 하고 있다. 최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된 플라스틱 농산물 가격조회 코드(PLU) 스티커 사용 금지를 논의 중이고, 빅토리아주에서는 신선 농산물 운송 시 일회용 종이, 플라스틱 및 종이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상자를 시범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와 산업을 중심으로 그린워싱 지침 등 플라스틱 오염을 증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는 필수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국가 간 에너지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순환경제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6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12억 3,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역시 함께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9%만 재활용되고 있고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세계 선진국의 대부분 물리적 재활용에 집중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EU와 미국은 화학적 재활용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재사용하는 기술로 물리적 재활용의 한계를 보완하며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다. 하지만 오존발생과 에너지 소비가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는 필수다. EU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패키지' 방안을 발표하며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및 리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다양한 폐자원이 재활용돼 제품 생산과정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철스크랩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제는 얼마나 잘 다시 쓰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세계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연 속 숨 쉬는 문화 공간, 방배숲환경도서관

숲속 자연에 둘러싸여 한가로이 독서를 즐기며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그려보고는 한다. 그림 속이나 존재할 법한 푸른 숲 한가운데,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글. 함유진 사진. 방배숲환경도서관

-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60-7
- 🕒 영업 시간: 평일 9:00~22:00 / 주말 9:00~18:00
매주 금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 전화: 02-537-6001
- 🌐 홈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도심 속 서리풀공원의 키 큰 나무들 사이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주변 풍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상아색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단 한 발짝 자연 속으로 들어섰을 뿐인데 분주한 도심과는 사뭇 다른 한적하고 고요한 풍경이 펼쳐진다.

2023년 6월 문을 연 ‘방배숲환경도서관’은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테마로 도심 속에서 친환경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각진 공공시설과는 달리 중앙정원(‘햇살, 딸’)을 감싸는 원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내부 어느 자리에 앉아도 푸른 풍경을 바라보며 독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옥상(‘구름, 딸’)에는 초록 잔디 사이로 십포 모양의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다. 바쁜 일상 속 주민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한 설계다. 이처럼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자연에 스며든 휴식의 공간이자 바쁜 도심 한가운데에서 거리를 둔 새로운 공공건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을 실천하는 배움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방배숲환경도서관은 ‘환경’을 주제로 특화된 도서관이다. 서초구가 설립하고 환경 NGO 단체인 사단법인 에코나우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전체 장서의 약 20%가 환경 주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도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와 환경보호에 관한 강연, 챌린지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자체 발행 소식지 ‘방배숲 생생환경정보통’을 배포하는 등 환경 특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방배숲환경도서관만의 독특한 시도는 시설에서도 나타난다. 각 공간의 명칭에 사람과 숲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이름을 붙여 자연과의 연결을 드러낸다. 건물의 중심 공간인 중앙정원은 ‘햇살, 딸’, 옥상은 ‘구름, 딸’로 명명되어 있으며 자료실 역시 연령대에 따라 식물의 성장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영유아 키즈룸은 ‘새싹, 숲’, 어린이 자료실은 ‘잎새, 숲’, 성인 자료실은 ‘열매, 숲’으로 구성되어 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자라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일상을 짓는 도서관

에코나우의 하지원 대표는 “환경은 말로 외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경험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



- 1 방배숲환경도서관 전경
- 2 자원순환캠페인
- 3 숲체험 프로그램
- 4 깨알에코라운지 전시 프로그램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처럼 방배숲환경도서관은 강연, 전시,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을 ‘환경’을 중심에 두고 기획하고 있다. 다회용 용기를 차amah면 리필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 업사이클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온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 주관 ‘그린애플 어워즈’ 환경교육 부문 동상 수상에 이어, 세계 4대 국제환경상 중 하나인 ‘2025년 그린월드 어워즈’ 지속가능발전 부문에서는 은상을 수상하며 방배숲환경도서관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환경 중심의 공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책을 넘어, 자연 가까이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



음성안내 QR코드

자연과 동행하는 걸음, 완주 만경강길 신천습지길



완주 만경강길 6코스 신천습지길: 약 6km



생태와 역사가 공존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수, 만경강.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만경강을 따라 걷는 길이 바로 '완주 만경강길'이다. 약 52km에 이르는 7개 코스 중 '만경강의 허파' 신천습지를 끼고 이어지는 6코스를 만나보자.

글: 함유진 사진: 완주군청, 한국관광콘텐츠랩,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가유산포털

만경강의 허파, 신천습지

만경강길을 따라 걸으면 회포대교 부근에서 두 하천이 합류해 새로운 생태 공간을 이루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소양천과 고산천이 만나 하천이 넓어지면서 물이 천천히 흘러 자갈과 모래가 겹겹이 쌓인 작은 섬들이 생겨났고, 이곳에 여러 생물종이 찾아들어 서식하거나 다양한 식생이 자리 잡았다. 현재의 신천습지는 수달, 흰꼬리수리, 노랑부리저어새 같은 멸종위기종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가시연꽃, 왜개연꽃, 노랑어리연꽃 등 수생식물이 뿌리내린 생태 공간이다.

만경강 산책로는 평지가 이어져 걷기에 부담이 없고 자전거길도 잘 조성되어 있다. 특히 만경강의 진가는 가을에 드러난다. 가을의 하천은 하얗게 물결치는 억새로 뒤덮여 자연의 풍광을 만끽하며 걷기 좋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흰 물결이 넘실대듯 억새무리가 시야를 가득 채운다.

기러기가 쉬어가는 곳, 비비정

초목이 우거진 강둑길을 따라 걷는 동안 울창한 나무 그늘 덕분에 아직 따가운 가을 햇볕을 피할 수 있다. 걷다 보면 옛 만경강 철교에 닿게 되고

그 뒤로 비비정이 자리한다. 달빛 아래 강변 백사장에 기러기가 내려앉아 쉬는 모습이 펼쳐진다고 해서 '비비낙안(飛飛落雁)'이라 불렀다. 그 표현처럼 정자에서 내려다보면 만경강과 그 위에 놓인 철교가 그림처럼 시야에 담긴다.

완주 대표 명소 9경 중 8경으로 꼽히는 비비정은 1573년 무인(武人) 최영길이 세운 정자를 가리킨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차례 철거되었다가 재건되어 오늘날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영길의 손자 최양이 우암 송시열에게 의뢰해 기문과 현판을 받아

붙였고, 그때부터 비비정이라 불리게 되었다.

비비정은 이름처럼 예로부터 주변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정자에 모인 선비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하천 너머 풍경을 감상하고 시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물가에는 희귀 철새가 날아드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특히나 가을은 만경강 옆으로 펼쳐지는 녹색 들녘이 황금 들녘으로 바뀌는 계절이라 이 시기만의 특별한 경험을 남길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비비정예술열차

비비정 정자에서 마주 보이는 구 만경강 철교는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의 농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세워진 다리다. 이후 호남선 철교가 시공되면서 폐철교가 되었지만, 지금은 비비정예술열차가 들어서며 관광 명소로 다시 태어났다.

폐 새마을호를 개조한 비비정예술열차는 레스토랑, 카페, 수공예품점, 갤러리로 구성된 4량짜리 열차로, 탁트인 창밖으로 흐르는 만경강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어 해가 지는 무렵이면 창가 좌석은 늘 만석이다.

비비정예술열차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오성한옥마을

만경강 철교 위에 과거와 새로운 현재를 잇는 상징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만경강과 신천습지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노을은 여행자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풍경이다.

비비정 정자



비비정예술열차 내부



완주 화암사 우화루

주변 가을 만한 곳

오성한옥마을

한 폭의 자연 속에 어우러져 문화와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 책방 등 문화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유명한 장소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996



대야수목원

풍경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경험을 원한다면 방문할 만한 장소다. 사시사철 변화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색으로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경험을 선사한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대야수목로 94-34

화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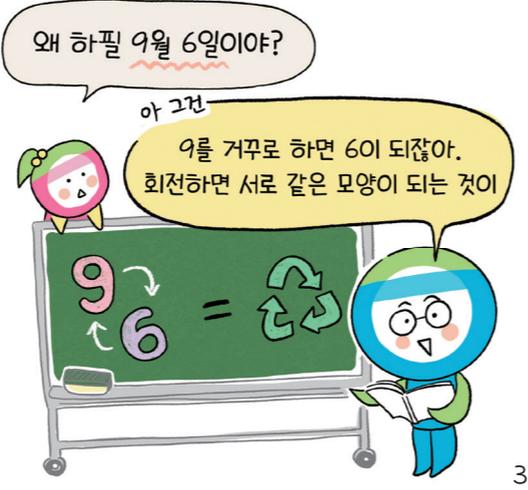
신라 해공왕(서기 769년) 때부터 천 년이 넘는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사찰이다. 울창한 나무가 만드는 그늘로 여름에도 시원하며, 사찰 내 찻집에서 전통차를 즐길 수도 있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

한국환경공단
푸루의 사계절툰

- 지구를 위한 자원순환 실천법 -

일러스트: 구희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 무릎 관절 주의보!



선선한 바람과 울긋불긋 산천을 수놓는 색의 향연으로 산과 들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다. 하지만 이처럼 활동량이 늘어나는 가을에는 무릎 관절에 과부하가 걸리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글: 함유진 자료 출처: 분당서울대병원

무릎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

무릎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관절이지만,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건강한 보행과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는 무릎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수적이다.



잘못된 자세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 등 좌식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대표적인 무릎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다. 무릎이 과도하게 꺾여 관절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연골에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다리를 꼬는 자세는 한쪽 다리에 체중이 쏠려 인대가 불균형하게 늘어나고 이로 인해 무릎 관절에 악영향을 준다.



과도한 체중
무릎은 전신의 체중 부하를 견디는 부위이기 때문에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과도한 무게가 가해지면 인대와 근육 등 무릎 관절 내부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체중을 1kg 줄이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3~5kg 이상 감소해 무릎 통증도 완화된다.



과격한 움직임
줄넘기, 토끼뛰, 무리한 러닝 등 과도한 움직임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준다. 또한 빠르게 달리던 중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계단을 급하게 뛰어 내려오는 행동도 무릎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종교적 의미를 지닌 108배와 같은 반복적인 절동작 역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움직임이다.

무릎을 강화하는 '다리 펴기 운동'

제자리에서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는 동작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해 관절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굽혔다 펴는 움직임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단련하면 유연성과 근력을 기를 수 있어 무릎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운동 방법

의자에 앉아 두 발을 편하게 내려둔다.

1

한쪽 다리를 천천히 수평으로 들어 올린 뒤, 뒤 허벅지가 당길 만큼 발목을 젖혀준다.

2

양다리를 번갈아 20~30회 천천히 반복한다.

3

운동 시 유의사항

- ▶ 다리를 완전히 펴기 어렵다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 ▶ 수술 부위 등에 압박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한다.
- ▶ 개인의 컨디션에 맞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간다.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철 식재료

관절 보양식, 새우

새우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 육류에 버금갈 만큼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아르기닌이 다량 들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을철 무릎 질환 예방에 적합한 식재료다. 새우에 함유된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칼슘 한가득, 굴

풍부한 단백질 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굴은 100g당 약 70kcal로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다.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며 다량 함유된 칼슘과 아연이 뼈 건강을 지켜 무릎 질환과 그 밖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푸루·그루와 함께 푸는 '이모지 퀴즈' 이벤트

한국환경공단 사보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년 가을호, 잘 읽어 보셨나요?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5년 가을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이모지 퀴즈



01.

ㅈ ㅅ ㅅ ㅎ ㅅ ㄹ

이모지 퀴즈 01

힌트 1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부와 한국폐기물 협회가 제정한 날

힌트 2 9월 6일(지면 18쪽)

02.

ㅎ ㄱ ㅅ ㅂ ㅈ ㅈ

이모지 퀴즈 02

힌트 1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힌트 2 유해물질 사용 억제와 폐기물 감소를 통해 환경부담의 경감(지면 20쪽)

03.

ㄱ ㄱ ㅁ ㅅ ㅅ
ㅋ ㄹ ㅅ ㅌ

이모지 퀴즈 03

힌트 1 물기술 개발, 성능 검증,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내 물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

힌트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 (지면 38쪽)



이모지 퀴즈 정답 보내는 방법



방법 1 독자엽서
정답과 함께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를 읽은 소감을 적어 우체통에 넣어준다.



방법 2 웹진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 접속해 '독자 참여'코너를 찾아 정답을 적는다.

응모 마감 : 11월 20일까지
당첨자 발표 : 다음 호 게재 및 개별 통보



QR 코드를 클릭하면 웹진에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5 AUTUMN SPECIAL EVENT

EVENT 01

사보 만족도 설문조사

웹진에서 사보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명을 선정하여 음료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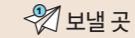
<설문조사 바로가기>



EVENT 02

이모지 독자퀴즈

58쪽에 실린 '이모지 독자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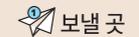


보낼 곳
웹진 독자 참여 코너 또는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EVENT 03

독자의견

가을호에 대한 의견이나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낼 곳
이메일(2025keco@gmail.com)이나, 독자엽서에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웹진(www.kecowebzine.kr)과 QR 코드로 빠르고 편리하게 사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름호의 독자의견을 소개합니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을 위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친환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가을호 이벤트는 위의 3가지입니다. ◆

독자의견

최근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여행 시에 환경과 여행 모두 즐기는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글로벌 환경리포트 '환경과 여행 모두를 충족하다, 에코투어리즘' 관련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네요. _ 강0숙

공해 속에 갇혀 살다보니 성지순례길의 숲길만 봐도 숨통이 탁 트입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숲의 청량함이 느껴져 마치 숲 속에서 홀로 서있는 온전한 저를 발견한 느낌이에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롭게 편안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지순례길을 걸어아겠습니다. 숲에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선물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_ 김0경

※ 이벤트 당첨자의 개인정보는 최소화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호 엽서 정답자

- 올리고당 | 경기도 시흥시
- 여름바다 | 경기도 고양시
- 행복님 | 서울시 은평구
- 온새미로 | 경상남도 양산시
- 길잡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빛살무늬토기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오해피 | 대전광역시 서구
- 허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 체험

푸루와 그루 분리배출 네임택 만들기

자원순환을 위한 첫번째 노력은 올바른 분리배출이 아닐까요?
푸루·그루와 나만의 분리배출 네임택을 만들어봐요.



준비물

가위, 칼, 색칠 도구, 종이에이프

만드는 방법

- 1 도안을 오리기 전에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 2 도안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 3 종이에이프를 이용해 분리배출함에 고정을 해요.



▶ 제작방법
영상으로 확인하기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주소

주소변경, 신규구독 및 구독중지를 희망할 경우, 작성해 주십시오.

주소변경(전, 후 기재) 신규구독 구독중지

※ 주소 : (변경 전)

(변경 후)

※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독자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발송 시 수취인명을 '구독자님'으로 일괄 처리해 발송합니다.
또한, 경품 당첨 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반송되오니
다시 한번 주소 확인 후 발송 부탁드립니다.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 06. 10.~

서인천 우체국
승인 40091호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오류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국민소통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담당자 앞

2 2 6 8 9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1. 이번 호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2.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4.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모지 퀴즈 정답

닉네임이 없는 경우 당첨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내주시는 분의 닉네임을 꼭 적어주세요.

닉네임 _____

01. 

자 오 사 허 오 L

01. _____

02. 

허 가 사 버 자 자

02. _____

03. 

가 가 모 사 오

쿠 르 사 테

03. _____



이모지 퀴즈의 정답을 표기하여 엽서를 보내주세요. 엽서 마감은 2025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엽서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K-eco 웹진 바로가기